빈 치안센터 방치 도심 흉물로

파출소 체제 전환 … 광주 15곳 청소년 우범지대 전락

쓰레기 '수북'·취객들 행패 … 공공재산 낭비

대민 치안 시스템이 '파출소' 체제에서 '지구대+치안센터'로 전환된 뒤, 또다시 파출소 중심으로 바뀌면서 대다수의 치안센터가 방치돼 도심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운영됐던 치안센터는 21곳 중 동부경찰(충장)·서부경찰(유덕·서창·양동·풍암)·광산경찰(역전치안센터) 등 6곳만이 2009년부터 파출소로 전환돼 운영중이며, 나머지 15곳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활용되지 않고 있는 치안센터는 ▲동부경찰이 4곳(황금·대인·학원·계림) ▲서부경찰 2곳(화정2동·운천) ▲남부경찰 2곳(월산1동·월산4동) ▲북부경찰 6곳(북성·문화·오치·신안·두암1동·우산1동) ▲광산경찰 1곳(우산치안센터) 등이다.

'지구대+치안센터' 체제 당시, 지구대는 광역 파출소 개념으로 운용됐으며 치안센터는 단순히 경찰의 초소나 순찰 거점 공간으로 이용됐으나 치안 수요가 많은 구역은 직원이 상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2009년 9월부터 대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에 따라 '지구대+파출소' 체제를 병행운영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파출소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이들 치안센터는 경찰서장의 재량 아래 교통·방범초소로 사용하거나 경찰 집기나 비품 보관창고로 쓰는 등 국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적이 뜸한 곳에 위치한 일부 치안센터는 우범지역으로 전락해 범죄발생 우려마저 낳고 있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치안센터 출입문 위에는 경찰 마크와 치안센터 이름이 붙었던 흔적만 희미하게 남은 채 주변에는 빈병·과자 봉지·음료수·담배 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서구 화정2동 치안센터도 출입문이 닫혔지만, 건물 외벽은 찌든 때로 검게 변하고 주변에는 오물 냄새가 나는 등 도심 속 흉물로 변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이나 놀이공간·사회복지시설로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 이모(52·북구 문화동)씨는 "오랫동안 비어 있어 취객들이 행패를 부리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동네의 흉물로 변하고 있다"며 "과거 범인들이 피해다니던 곳인데, 현재는 우범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주민들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매각을 하더라도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팔 수도 없는 형편"이라며 "빈 치안센터는 비품 보관창고로 활용 중인데, 앞으로 파출소 전환이 확대되면 빈 곳으로 남아있는 치안센터를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8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북부경찰서 신안 치안센터. 잡풀이 우거지고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는 센터 입구를 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법정관리 물의' 광주지법 선재성 부장판사

"사법 신뢰 금가게 해 죄송"

부적절한 법정관리 업무로 파문을 일으킨 광주지법 선재성(48) 수석부장판사가 8일 "사법 신뢰에 금이 가게 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선 부장판사는 이날 직원들과 가진 송별식에서 "사려깊지 못한 판단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선 부장판사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법인회생절차에 대해 많은 분이 잘 알지 못해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컸다"며 "앞으로는 소송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더욱 잘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선 부장판사는 자신이 재판을 맡은 법정관리 기업에 친형과 친구를 감사로 선임하고, 자신의 운전기사 출신 인사를 관리인에 선임되도록 후배 법관에게 추천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일 인사조치 됐다.

선 부장판사는 이날부터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9일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구를 하게 된다. 대법원은 인사 조치와는 별도로 법원행정처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선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선 부장판사가 맡았던 파산부 업무는 후임으로 발령난 윤성원(47) 수석부장판사가 대행하게 된다. 선 부장판사는 "법정관리 기업들을 회생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며 "앞으로 많은 분께서 지역 경제를 위해 어려움을 무릅쓰고 노력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선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과 관련해 검찰에 진정서가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업무수행에서도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같은 결론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참 〈8263〉 김종두

개학일 남구 초등교 방화범은 '임용 탈락' 전직 기간제 교사

교사 임용 탈락에 불만을 품고 학교 등에 불을 지른 30대 전직 기간제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8일 학교 건물과 교장 관사 등에 불을 지른 최모(35)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일 새벽 0시1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A초등학교 1층 교실에 불을 지르고, 3일 뒤인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께 이 학교 운동장에 주차돼 있던 카렌스 승용차에도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지난달 28일 오후 7시30분께 보은군 수한면 B초등학교 교장의 관사에 불을 붙이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초등학교에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최씨는 재계약에 실패하고, 지난해 12월께 A초등학교에 지원했으나 탈락하자 홧김에 잇따라 2곳의 초등학교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 2006년 교육대를 졸업했으나 1년 가량 병원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방화를 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군산에 필로폰 밀반입 50대 등 7명 구속·2명 입건

중국에서 필로폰을 대량 구입한 뒤 이를 국내에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자신의 몸 속에 필로폰을 숨겨 반입하려던 40대 여성과 내연남이 해경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8일 필로폰을 밀반입한 서모(56)씨 등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책 장모(43)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군산해양경찰은 이날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던 최모(여·43)씨와 내연남 임모(39)씨 등 2명을 마약 밀수입 및 투약 혐의로 구속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故 장자연 눈물의 편지 '성접대 명단' 언급 파문

사본 일부 공개 … 곳곳에 수치심·분노 표출

탤런트 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형사재판 기록에 첨부된 장씨의 친필편지 사본 일부가 공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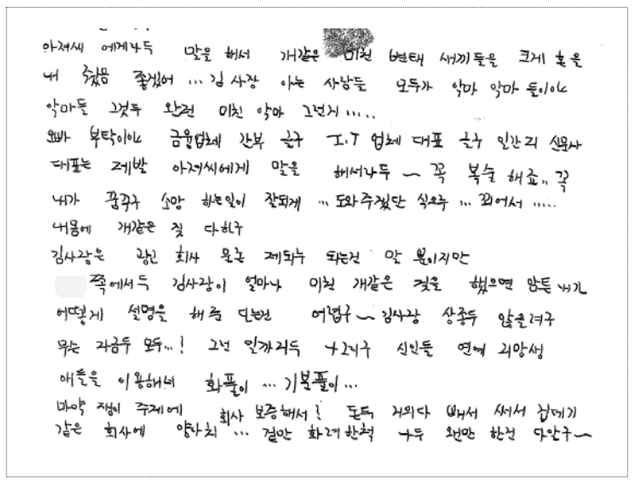
8일 언론에 공개된 편지에는 장씨가 언론사 대표와 기업, 기획사, 감독 등으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당했음을 암시하는 내용과 이로 인한 수치심, 이들에 대한 분노가 넘쳐흐른다.

제출된 자료에는 생략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31명을 특정해 명단을 만들어 놓았음을 시사하는 부분도 있다.

총 200여 페이지가 넘는 이 편지는 교도소에 수감중인 지인 전모 씨가 수십차례에 걸쳐 장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래는 공개된 장씨의 편지 가운데 일부를 발췌한 것.

▲악마들 모두 죽어라~..미친변태..악마들 S..중독자들 감독 PD 기획사 사장 일간지 신문사 사장 인터넷 신문사 사장 금융회사 변태들 기업사장 간부들 김○○이 같은 기획사대표 악마들 태국 변태감독 중독자 ○○○ 모두 32명 외주제작사 PD들두 모두 다 저주받게 할거구 더이상 당하진 않을꼬야. 더이상은 지금 자연이 죽어가구 있어 ▲같은 회사 연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 만지고…정말이야 정말 죽고 싶고 모든 걸 다 끝내버리고 싶다.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비참해. 차라리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 김○○ 미친 개○○ 내가 왜 그런 미친○○들 감독 PD, 일간지 신문사 대표, ○○업체 언론사 대표 등 김사장 광고 수주받아 낼라고 재벌 대기업 대표들 등에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이용당하면서 살아야 할지 더는 참을 수 없어 ▲김사장 아는 사람들 모두가 악마 악마들이야. 악마들. 그것도 완전 미친 악마 그런거. 오빠 부탁이야. 금융업체 간부 그리고 IT 업체 대표 글고 일간지 신문사 대표는 제발 아저씨에게 말을 해서라도 꼭 복수해 줘 ▲술접대 성상납 강요했던 미친 ○○들에게 연락은 계속 오고 날 가지고 놀고 싶음 가지고…내가 물건도 아닌데 다 해처먹고. 저번 5월달 태국 여행 때 날 데리고가서 개○○ 여행도 아닌. 날 그 감독 애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날 수 없이 괴롭히려고 하고 정말 미치겠어. /연합뉴스



여수 주유소 가짜 경유 판매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여수의 한 주유소가 적발됐다.

8일 여수시와 한국석유관리원 호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여수시 공화동의 S주유소에서 판매중인 유류에 대한 품질조사 결과 유사석유제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여수시에 통보했다.

석유관리원 호남본부 조사 결과 S주유소는 유사석유제품을 지역 내 공사현장의 포클레인이나 불도저 기사들에게 판매한 뒤 부당하게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는 S주유소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여수경찰은 정확한 유사석유제품 판매 규모와 경위, 부당이득 액수 등을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여중생 노래방 도우미 알선 남부경찰, 조직폭력배 검거

광주남부경찰은 8일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가출한 10대 여학생들을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한 충장OB파 조직원 주모(23)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1일부터 김모(15·광주 모 중학교 3년)양 등 10대 여학생 4명을 노래방에 보내 성인들과 어울리게 한 뒤 총 120만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

1800만원 명품시계 주워 헐값에 팔아

쌍나팔

○…취객이 길거리에 떨어뜨린 고가의 명품 시계를 주워 금은방에 팔아넘긴 30대 2명과 시계를 매입한 금은방 업주가 각각 점유이탈물횡령과 장물취득 혐의로 나란히 경찰서행.

○…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4)씨 등은 지난해 7월 18일 새벽 1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호텔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정모(34)씨가 길거리에 흘린 18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를 주워 금은방 업주 정모(44)씨에게 32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는 것.

○…금은방 업주 정씨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돼 있는 등 광주에 10여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이 고가시계를 판매하기 위해 최근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렸다가 시계를 잃어버린 정씨가 미리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하던 경찰에 덜미.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 행정, 세무, 검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 강의시간 :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 행정, 세무, 검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회복지, 농업직, 기술직 — 강의시간 :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월 짝/홀수반 개강
9급 문제풀이 — 행정직/ 세무직/ 교육행정직/ 검찰직/ 교정직 — 강의시간 :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 검찰직 — 강의시간 : 09:00–19:20 (2개월 완성) —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강!
9급 야간반 — 강의시간 : 19:00–22:00 (3개월 완성) —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종합반
농업직/ 기술직 — 강의시간 :09:00–15:30 (2개월 완성) —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명품 "강력단과" — 영어, 국사, 행정학, 행정법, 국어, 헌법, 회계학, 경제학, 교육학 — 강의시간 : 15:30 – 18:30 (2개월 완성)
호남 유일 소방직 (전문) — 시험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 강의시간 :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월 짝/홀수반 개강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252-0252
개강 매월 1일